

브룩스가 불려온 바람... "1위 KT도 두렵지 않다"



에이스의 귀환에 KIA 마운드 안정 찾으며 반전의 7월 보내 야수진도 공수 집중력 높아져... 홈 경기서 KT 잡을지 '주목'



브룩스가 불려온 바람이 KT전에도 불까? 6월을 6승으로 마무리했던 KIA 타이거즈는 연승으로 새로운 달을 열면서 반전의 7월을 보내고 있다.

변화의 시작점은 브룩스가 있었다. 지난 6월 1일 한화전을 끝으로 팔꿈치 통증으로 자리를 비웠던 브룩스는 지난 1일 NC와의 홈경기를 통해서 한 달 만에 다시 마운드에 섰다. 그리고 브룩스는 우려를 떨어내는 피칭을 선보이며 에이스의 귀환을 알렸다. 최형우의 복귀까지 맞물려 KIA는 연달아 NC전 연패, 두산전 연패를 끊어내면서 7월 가장 뜨거운 팀이 됐다.

브룩스의 가세로 KIA 마운드는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KIA는 멧덴에 이어 브룩스까지 이탈하면서 '대체 선발'로 어렵게 선발진을 꾸려갔고, 선발진 붕괴는 불펜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마운드 악순환이

반복됐다. 하지만 브룩스가 돌아오면서 KIA의 선발 로테이션 고민이 줄었다. 다른 선발진의 부담도 덜어내면서 동반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브룩스 복귀 이후 KIA의 고정 선발 이의리, 김유신, 임기영은 호투 릴레이로 시즌 첫 4연승을 이었다. 이의리는 6이닝 2실점 피칭으로 2일 두산을 상대로 시즌 4승에 성공했고, 김유신은 4일 5이닝 1실점으로 2018시즌 입단 후 첫 승을 신고하며 두산전 연승을 만들었다. 임기영은 타선의 침묵으로 승리는 가져가지 못했지만 7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7일 한화전 연장 11회 4-1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브룩스가 마운드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KIA 어린 투수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김유신은 첫 승을 거둔 뒤 "팀이 브룩스한테 많이 매달려있던 상황인데 힘이 된다"며 "브룩스가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다. 사어나 하는 것도 따라 하기도 하고 많이 묻는다. 어디를 보고 던지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글러브와 포수 몸통만 보고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수진에게도 브룩스는 가장 반기는 선발이다. 브룩스가 빠른 템포로, 공격적으로 공을 던지면 야수진은 집중해서 수비에 임하게 된다. 브룩스의 복귀전에서 투런포를 작렬했던 김호영도 "평상시대로 했는데 브룩스가 잘 던져주니까 더 잘하게 된 것 같다. 템포도 빠르고 잘 던져주니까 수비할 때 마음이 편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었다. 수비 시간이 짧아 수축 타석에서의 집중력도 높아지는 만큼 브룩스는 수비는 물론 공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브룩스를 시작으로 투수들이 공격적이고 빠른 피칭을 이어가면서 좋은 수비와 타격도 따라왔다. 분위기를 이어 KIA는 9일부터 1위 KT를 상대로 열세 만회에 나선다. 올 시즌 KIA는 KT에 2승 7패를 기록하고 있다. 7패 중 5패가 역전패였고 두 경기에서는 불펜세이브도 기록했다. 2승도 1점 차 진압승이었다. 특히 지난 6월 22일 수원 KT전에서 잘 던지고도 기록되지 않은 야수진의 실수 연발에 패전의 멍에를 썼던 이의리가 비로 등판이 밀리면서 홈팬들 앞에서 설욕전에 나서게 됐다. 브룩스를 앞세워 분위기를 바꾼 KIA가 1위 KT까지 잡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상승세 KIA '코로나 악재'

한화 원정 숙소에서 확진자 발생...경기 취소

상승세를 탄 '호랑이 군단'이 코로나19 악재를 만났다. KIA 타이거즈가 8일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예정됐던 한화 이글스와의 시즌 7차전을 치르지 못하고 안방으로 복귀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됐다. 지난 5-7일 서울에서 LG와 경기를 치렀던 한화의 원정 숙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KBO는 이에 따라 경기장 내 안전 및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대전 경기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같은 숙소를 쓴 NC 선수단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이날 KIA-한화전과 잠실 NC-두산전이 취소됐다. 최근 흐름으로 보면 KIA 입장에서 아쉬운 취소가 됐다. KIA는 전날 연장 11회 타점의 싹쓸이 2루타로 4-1로 승리, 시즌 첫 4연승을 이었다. 8일에는 돌아온 에이스 브룩스가 출격을 준비

했던 만큼 상승세에 만난 코로나 19가 너무 아쉽다. 사실 경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그 자체다. 8일 경기 취소로만 끝나면 다행이지만 혹시 한화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KIA 선수단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경기 취소는 물론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KIA는 '뺏바의 휴식날'을 마음 풀이면서 보냈다. KBO리그도 노심조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앞서 KT 코치와 두산 전력분석원의 확진으로 지난 6월 29일에도 경기가 취소됐었다. 롯데 서튼 감독은 최근 국내에 입국한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 격리 끝에 8일 그라운드로 복귀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대유행이 그라운드까지 번지면서 KBO리그가 초긴장 상태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청 육상 400m계주 우승...김국영 '2관왕'

전국실업육상대회

광주시청 김국영이 2021 고성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국영은 8일 고성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400m계주에서 여호수아, 김민군, 강익빈과 호흡을 맞춰 40초13의 기록으로 광주시청에 금메달을 안겼다. 2위는 경산시청(40초88), 3위는 서천군청(41초06)이 차지했다. 전날 남자 1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김국영은 계주 우승으로 대회 2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시청 남자계주는 지난달 27일 제75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이어 올시즌 2번째 정상에 오르는 실력을 과시했다. 한정미는 여자일반부 200m에서 24초77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은메달을 기록했다. 이준은 남자일반부 400m에서 48초70을 기록, 김윤재(과천시청 48초25)에 이어 2위를 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400m계주에서 우승한 광주시청 육상팀. 왼쪽부터 여호수아, 김국영, 김민군, 강익빈.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만 37세 윤영중, 핀수영 세계선수권 금메달 광주시체육회 서의진 여자 표면 50m 동메달

핀수영 국가대표 윤영중(37·경기도청)이 제21회 핀수영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대표팀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윤영중은 7일(한국시간) 러시아 톰스크에서 열린 호흡잠영 400m 결승에서 2분44초49의 기록으로 중국 옹안 산(2분47초27)을 제치고 우승했다. 첫 랩타임은 19초56으로 가장 먼저 끊은 윤영중은 이후 단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고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했다. 1984년인 베테랑 윤영중은 중거리 호흡잠영의 간판이다.

그는 2010년 호흡잠영 400m에서 2분43초81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등 오랜 기간 해당 종목에서 최고의 기량을 유지했다.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윤영중은 적지 않은 나이에도 엄청난 훈련량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앞두고는 혹독한 체중 감량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여자 표면 50m에서는 장예슬(부산시체육회)이 17초68의 기록으로 은메달, 서의진(광주시체육회)은 17초73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민지(충남체육회)는 짝핀 5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볼티모어 만나면 훨훨...류현진 '기분좋은 8승'

5이닝 7탈삼진·1실점 호투 8승 5패로 전반기 마감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2021년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안았다. 류현진은 8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앳 캠펜 야드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치른 미국프로야구(MLB) 방문 경기에서 선발로 마운드에 올라 탈삼진 7개를 슈아내며 5이닝 동안 1점만 줬다. 류현진은 공 86개를 던져 안타 5개, 볼넷 2개를 허용했다. 타선의 넉넉한 지원 덕분에 9-1로 앞선 6회 승리 투수 요건을 안고 강판한 류현진은 10-2

로 경기 마감에 따라 승리를 따내고 6월 27일 이래 11일 만에 웃었다. 류현진은 시즌 17경기에 선발 등판해 8승 5패, 평균자책점(ERA) 3.56으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8승 중 3승을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최약체인 볼티모어를 상대로 따냈다. 토론토는 12일 탬파베이 레이스와 전반기 최종전을 벌이고 나흘간의 올스타전 휴식을 거쳐 17일 후반기 레이스를 재개한다. 류현진은 이날도 초반 제구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1회 19개, 2회 22개, 3회 23개 등 이닝을 더할수록 투구 수는 줄지 않고 더욱 늘었다. 요즘 가장 공을 듣는 체인업의 제구가 크게

개선되지 않자 류현진은 결국 속구 비율을 높였다. 최고 시속 149km의 빠른 볼의 비율이 3회까진 전체 구종의 52%를 차지하기도 했다. 야구 통계 사이트 베이스볼리퍼블릭을 보면, 류현진은 빠른 볼 42개(49%), 체인업 18개(21%), 컷 패스트볼 16개(19%), 커브 8개(9%), 싱커 2개(2%)를 던졌다. 속구의 비중이 높았다. 류현진은 6-0으로 멀리 달아난 4회 이날 처음으로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쳤으나 5회 시작과 함께 연속 3안타를 맞고 무사 만루 고비를 맞았다. 이어 헤이스에게 중견수 쪽 희생플라이를 내줘 1실점 했다. 이어진 1사 1, 3루에서 류현진은 우익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기막힌 송구로 추가 실점을 피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블랙 위도우 |
| 2관 | 블랙 위도우 |
| 3관 | 발신제한 |
| 4관 | 블랙 위도우, 이번엔 잘 되겠지 |
| 5관 | 블랙 위도우,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
| 6관 | 블랙 위도우 |
| 9관 | 블랙 위도우,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
| 7관 | 씨네캐슬 발신제한, 미드나이트 크루엘라,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
| 8관 | 씨네캐슬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

GAC기회공연 포시즌
김민지 첼로 리사이클
일시: 2021. 07. 13.(화)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차진엽의 지구 모자이크화

GAC 11시 음악산책 4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